

## 미국의 정치 출판

#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 개인과 나라의 역사를 담아내는 기록문학으로 거듭난다

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인들이 펴내는 자전적 회고록이나 전기 등이 정치색을 띠는 것은 일면 자연스럽다. 그렇다 보니 총선이나 대선 등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은 여론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이력과 능력을 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펴낸다. 이는 비단 한국에 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글:이구용

**정**치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 출판시장에서 도 정치인들과 관련한 회고록이나 전기들이 대선 등을 전후로 적잖이 출판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출판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정치인 관련 도서들은 선거를 염두에 둔 경우보다는 오히려 평상시에 꾸준히 출판되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이 우리와는 다르다.

미국 출판시장에서의 정치인 관련 도서에 대한 일반적인 흐름이나 현상을 짚어보면, 한국 정치인들이 특수 시즌을 겨냥해 펴내는 책들에 비해 비교적 정치색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미국 정치인들의 책 중 상당수는 글쓰이의 인생철학이나 정치철학이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져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의 팜플릿류의 같은 책과는 차별된다. 글쓰이가 단순히 정치인 신분으로서만이 아닌 인물로 거듭나, 결과적으로 스테디셀러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결국 미국 출판시장에서 한 시즌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책은 그렇지 않은 책에 비해 그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개인사에서 시작해 정치사를 정리한다

미국 출판시장에는 정치인으로서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한 인간의 소박한 삶과 철학을 담은 책들이 많다. 2000년 9월에 출간된 《사랑해요, 로니》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감동적인 아내 사랑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은 당시 출간 한 달 만에 40여 만 부가 팔려나갔다. 1950년부터 1994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레이건이 부인 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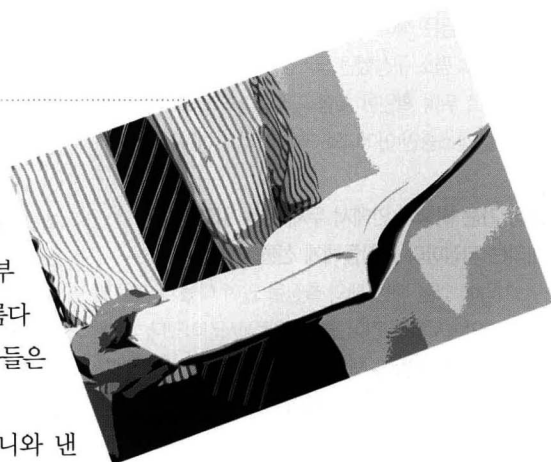
시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화려함은 뒤로하고 평범한 말년의 노부부로 남은 그들 부부가 나눈 아름다운 사랑을 엿보기 위해서 독자들은 이 책을 집어 들었다.

이후 2004년 9월에는 《로니와 낸시》라는 책도 출간됐다. 이 책에서는 정치적 사회(史話)를 비롯해 20세기 전반에 걸친 미국의 사회사는 물론이고, 역대 미국 대통령 커플 중 금슬 좋기로 소문난 레이건 부부의 감동적인 러브스토리가 또 한번 흥미롭게 그려졌다.

위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 출판시장에서는 자국의 역대 대통령 개인의 사사로운 부분에서 출발하여, 당대는 물론 과거의 정치사를 끊임없이 재조명하는 가운데 스스로의 역사를 새롭게 정돈해 나간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자국의 역대 대통령을 세계적인 인물로, 세계적인 영웅으로, 그리고 자국의 역사를 세계 중심의 역사로 자리 잡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정치적 목적과 회고의 목적을 동시에 지닌다

한편, 일부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이중적 목적을 지닌 책을 선보인 정치인들도 있다. 불과 수년 전에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영역을 뛰어넘어, 전 세계 출판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한 정치적 야심가 힐러리 클린턴



이 그 중심에 서있다.

《살아있는 역사》 이전에 출간된 그에 대한 전기로는 《힐러리의 선택》을 주목해볼만 하다. 1998년에 처음 선보였다가 1999년 말 다시 개정증보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유명 저널리스트인 게일 쉬이가 쓴 것으로, 힐러리의 어린 시절부터 영부인이 된 후 뉴욕 주 연방 상원의원 출마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역정을 담았다. 첫사랑이었던 데이비드 루퍼트를 버리고 야심가였던 빌 클린턴을 택한 것도 힐러리의 야망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 또한 이 책에서 흥미롭게 소개된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인지도 면에서도 힐러리를 능가하는 이가 있는데, 바로 빌 클린턴이다. 이미 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선인세를 받는 작가이니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다. 그의 자서전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대열에서 맹위를 떨친 책이다. 엄밀히 말해 이 책 역시 클린턴의 직접적인 정치적 목표와는 크게 상관없는 책이다.

그리고 2003년 10월 나이젤 해밀튼이 쓴 800쪽 분량의 전기 《빌 클린턴: 위대한 유산》은 빌 클린턴의 출생부터 백악관 입성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그야말로 한 정치인의 인생과 그를 통한 미국의 사회사와 정치사를 정리하고 있다.

### 정치적 의도만을 담는다

세 번째는 본격적인 정치적 의도가 담긴 책들이다. 네오콘의 아성이자 싱크 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상임연구원이기도 한 데이빗 프럼이 쓴 책들이 여기에 꼽힌다. 처음으로 '악의 축' 발언을 한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 연설문을 작성한 인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가, 역시 네오콘의 대표적 인물이면서 과거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 자문 위원, 현 부시 행정부 초기 국방정책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워싱턴 정가에 꽤나 영향력을 지녔던 리처드 펠이란 인물과 함께 공저한 책 《악의 종말》(An End to Evil)이 그 중 하나이다.

이 책은 현 부시 대통령의 재선 직전에 출판되었던 책으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부시 집권 2기를 준비하

는 하나의 어젠더 성격을 지닌 것으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한 책이다. 또한 이 책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즉각적인 핵 포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 1962년 쿠바처럼 북한을 무력으로 봉쇄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등 공개적인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부시 진영의 목소리를 담은 책이다.

《악의 종말》과 상반된 입장의 목소리를 담은 책으로는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마이클 무어의 《이봐, 내 나라를 돌려줘》가 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수개월 만에 단박에 1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책이 출간되기 전인 2002년 초에 《명청한 백인들》을 통해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마이클 무어는 2003년 3월에 열렸던 제75회 아카데미 영화상 수상식에서 《블링 포 콜럼버인》으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미스터 부시, 부끄러운 줄 아시오”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인물로 할리우드의 반전 운동가이자 인기 정치사회평론가이며 반부시, 반보수주의자이기도 하다. 《이봐, 내 나라를 돌려줘》에서 그는 다시 한번 독설가다운 면모를 과시한다. 부시에게 9·11테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부시를 향해 여러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 출판시장에서의 정치인 관련서들은 정치적 목적 외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은 물론, 한 개인의 역사와 한 나라의 역사를 담아내는 기록문학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정치 출판이 본보기로 삼을만하다. **▶▶**

이구용님은 저작권 대행 에이전시인 ㈜임프리마코리아에서 국내 외 출판저작물의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으며, 번역가이자 출판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